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10월 18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기관)	항공과	담당자	• 항공정책팀장 박경원 ☎440-4801 • 담당자 강연서 ☎440-4802
	항공우주 산학융합원	담당자	• 사무국장 김태욱 ☎858-8766 • 담당자 이채욱 ☎858-9161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미리 만나는 24년 파리 올림픽 도심항공교통 실증 비행
 - 11월 9일, '2023 K-UAM 콘팩스' 특별세션에서 첫 합동 발표 -
 - 파리 올림픽 기간 중 운송·관광 등 도심항공교통(UAM) 5개 노선 운영 예정 -

오는 11월 인천에서 2024 파리 올림픽 기간 중 파리 하늘을 날게 될 도심항공교통(UAM)을 미리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오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23 K-UAM 콘팩스'의 개막일(11월 9일) 오후 '파리 올림픽 도심항공교통 실증 비행' 특별 세션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 특별 세션에는 '2024 파리 올림픽 도심항공교통 실증 프로젝트'를 주제로, 파리 올림픽 도심항공교통 실증 비행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행정 당국과 공항 기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발표에 나선다.

일드 프랑스(파리 및 근교를 합친 행정구역)는 도시 관점에서, 파리공

항공그룹(ADP)은 공항 관점에서, 실증 비행 기체 제작사인 볼로콥터사와 버티포트 운용사인 스카이포츠사는 기체 제작과 운영 서비스 관점에서 각각 발표한다.

파리 올림픽 도심항공교통 실증 비행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참여 기업들이 국제 행사에 대거 참여해 합동 발표에 나서는 것은 이 행사가 처음이다. 기존의 기체 중심으로 논의되던 실증 비행이 버티포트, 운영서비스, 관광 노선 등 도심항공교통 체계 전반을 세부적으로 선보여이는 시간으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드 프랑스의 ‘파리올림픽 도심항공교통 실증 비행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부터 비행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실증 및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2024년 하계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중 다섯 곳의 버티포트를 기점으로 세 개의 운송 노선과 두 개의 순환 관광 노선이 운용될 예정인데, 파리항공그룹(ADP)는 올림픽 기간 중 도심항공교통 탑승 티켓을 판매 예정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장은 “이번 특별세션은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글로벌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인 인천의 도심항공교통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K-도심항공교통(UAM) 콘퍼스가 도심항공교통 표준과 생태계, 사회와 시민의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세계적인 행사가 되도록 힘쓸것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도심항공교통 선도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K-도심항공교통(UAM) 콘퍼스를 개최해 오고 있다.

콘퍼스를 통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고자 국제 협력체인 거스(GURS, Global UAM Regional Summit)도 탄생시켰다. 이 협력체에는 도시·공항·대학·기관 등 14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콘퍼스 행사는 거스(GURS) 회원들의 연차 총회가 열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3회째를 맞은 K-도심항공교통(UAM) 콘퍼스는 인천시와 거스(GURS)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하대학교 등 국내·외 11개 기관이 주관으로 참여한다.

콘퍼런스는 기조 강연과 7개 세션의 주제 및 토론으로 진행되고, 전시관은 컨소시엄관, 체험관 등 6개 테마별로 구성돼 도심항공교통 연관 산업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 실증 비행, K-도심항공교통(UAM) 비즈 살롱(Biz Salon), 도심항공교통 아카데미, 스타트업 대상 투자 유치 프로그램, K-도심항공교통(UAM) 테크 마켓 등 정책 토의, 비즈니스, 체험이 어우러져 도심항공교통 생태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